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30 화목, 하나님의 부탁

골 1:21~22, 고후 5:17~21
은혜찬송 189장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됐네), 찬양 71장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오늘 배울 말씀

1.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을 압니다.
2.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함을 압니다.
3. 잃어진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압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 ]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 ]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20~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 ]케 하사 너희를 [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 1:21~22)

말씀을 이해하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그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처리하여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룬 우리는 아직 잃어진 상태에 있는 주위의 영혼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사하셔서 화목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화평한 방법으로만 되진 않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 간에도 많은 언쟁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누리는 잠시의 평화도 수많은 사람이 흘린 피로써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싸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다른 사소한 일에서의 다툼과 분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양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후 5:18)

Now all things are of God, who has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and has given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 Co 5:18)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을 때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현재를 비교해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적어봅시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2 잘못을 범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왜 깨어졌고, 어떻게 다시 화목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3 교회, 가정, 학교에서의 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불화의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적어보고 교제해 봅시다.

구 분	불화의 원인	해결 방법
교회		
가정		
학교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16:7	
월	롬 12:18	
화	고후 5:20	

수

골 1:20

목

살전 3:12

금

살전 5:13

토

히 12:14

화평케 하는 자의 자기 통제

알렉산더 바쉐는 어떤 중요한 실험을 위해 수년 간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어느 날, 그는 바로 실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도구들을 탁자 위에 잘 배열해 놓고는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가 연구실에 들렀다가 치마로 실험 도구를 건드려 모든 도구들을 박살 내고 말았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바쉐는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잠시 정신을 잃는 듯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겠다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5분 후, 바쉐는 다시 유쾌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페어맨 로저스에게 '나는 5분 동안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으로, 감정의 폭발에 좌우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러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인내하고 포용하는 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의로운 분노로 죄많은 인간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셨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화내고 있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대로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성을 내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원망과 증오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7~18)

질문 있어요~

천년왕국이 정말 있을까요? 비유나 상징은 아닐까요?

성경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인 반면에(계 21:1~4, 벧후 3:12~13), 다른 하나는 죽음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틀림없이 이 세상은 두 번 새롭게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7년 환난 후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슥 14:7)

앞의 말씀을 읽어 보면 이는 지구가 재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에덴동산처럼 아름답게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던 자연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해방될 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때를 말합니다(롬 8:19~21).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계 21:1)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 년 동안 계속되는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천 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단을 잡아 천 년 동안 무저갱(無低坑)에 가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 년 동안 왕노릇하며, 천 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풀려 나와 반역을 일으키다 패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맹수들과 뛰어놀고(사 11:6~9), 짐승들이 온순해지며(사 65:17~25),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슥 14:16~21).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한 비유나 상징일리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7년 환난도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들여 짐승이 과거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든지,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기록된 예언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시대이고, 기록된 예언대로 얼마 후에 거짓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고토(故土)로 돌아오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7년 환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